

# 홍석중의 <황진이> 연구

- 주인공의 현실인식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고 인 환\*

차 례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 I. 서론

### 1. 문제제기

홍석중의 <황진이><sup>1)</sup>는 북한문학의 내적 변화와 남북 문학 교류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문학은 기존의 이념적 지향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나 여

---

\*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홍석중의 <황진이>는 2002년 북한(문학예술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이후 남측 정부의 허가를 받아 2004년 대훈에서 재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남한에서 출간된 대훈판 <황진이>를 텍스트로 삼았다. 북한에서 출간된 <황진이>의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남한 식으로 바꾸었지만, 북한판 원본의 표기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의미 해석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이하 권수와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황진이>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먼저, 홍석중의 <황진이>가 북한에서 통용되는 ‘역사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에서 역사소설은, 허구라는 소설 장르로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라 소설로 재현된 사실 그대로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역사소설의 목표 또한 소설을 그대로 믿게 하는 것이다. 즉 역사의 이야기화를 통해 허구의 사실화를 피하는 것이 북한 역사소설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2)</sup> 하지만 홍석중의 <황진이>는 역사적 사실성과 소설적 개연성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조우하는 접점에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불멸의 총서> 계열의 역사소설과 차이점을 지닌다. 이에 황진이의 문제적 삶은 시대적 제약을 뛰어넘어 근대적 주체의 서사로 읽혀질 가능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북쪽의 작가가 남측의 독자를 상정하고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북측의 독자뿐만 아니라, 남측의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민중을 억압하는 상층계급의 허세와 모순을 비판하는 황진이의 당찬 모습은 남북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는 우연한 현상이 아닌데, 꾸준히 진행된 북한문학 연구와 남북 문학 교류의 한 성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홍석중의 <황진이>는 북한에서 요구받는 문학의 이념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도, 남측의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강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다.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렬한 어조로 등장하지만, 이 소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개인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추구라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제와 이념의 논리에 포박된 기존의 북한문학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상당한 파격이다. 이와 더불어 출생의

2) 이상숙, 「역사소설 작가로서의 홍석중」,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92쪽 참조.

비밀을 둘러싼 황진이의 내면적 갈등, '성'을 둘러싼 개인들의 욕망 그리고 허위와 가식으로 가득 찬 세속을 떠나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황진이의 모습 등은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지하듯, 북한문학의 유연성은 경직된 체제에 대한 거리감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남한문학과 소통의 길을 내는 계기를 마련한다.<sup>3)</sup> 홍석중의 <황진이>에 드러난 인물은 기존의 민중, 즉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 기획에 기초한 역사의식으로 무장한 민중이 아니다. 그것은 민중을 계승하는 한편, 민중의 전위적 성격을 다시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항적 전위가 새로운 지배집단으로 전향한 것에 대한 거의 무의식적 경계심을 공유하고 있는 새로운 대중 또는 새로운 민중은 근대와 탈근대의 경계에 등지를 트고 있는지도 모른다.<sup>4)</sup>

3) 이를테면, 우리의 문학사는 1930년대를 역사소설의 시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산문정신의 약화가 그 궁극적 원인인데, 일제의 탄압에 의해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제반 움직임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위축됨으로써, 상상력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장되는 과거로 퇴행했기 때문이다(정호용, 『한국의 역사소설』, 역락, 2006, 12쪽 참조). 이를 동시대 북한문학을 유추하는 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체제와 이념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의 작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형상화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는 과거의 역사를 동시대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지를 것인가에 달려 있다. 홍석중의 <황진이>는 과거의 역사를 주체사상의 이념으로 전유하는 <불멸의 총서>나 <불멸의 향도> 계열의 역사소설과는 달리,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과거를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북한역사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홍석중의 <황진이>가 이루어낸 성취는 남한의 역사소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황진이>에 대한 연구는 북한문학의 변화가능성과 남북 문학의 소통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한다.

4) 최원식은 체제와 반체제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면제된 하위자 황진이를 근대소설의 주인공을 넘어서는 곳에 등지를 튼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본다. 민족의 영웅도, 계급의 영도자도 아니면서, 이 모든 남성적 세계를 조롱하는 무정부주의적 자유를 온몸으로 시현(示現)했던 이 조숙한 여성에 대한 작가의 간절한 관심은 최근 남북한 역사소설의 변화의 징조를 예각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최원식,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감각들-김영하의 <검은 꽃>과 홍석중의 <황진이>」,

남측의 역사에 대한 남다른 최근 열기 또한 홍석중의 『황진이』를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역사적 과거의 재현보다 문화코드로 과거를 재창안하는 퓨전사극으로서, 영웅의 무용담보다 하층민 민중의 성공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남측의 역사물들<sup>5)</sup>은 기존 역사소설의 이념 지향과 영웅사관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문학에서 1980년대 이후 제기된 ‘숨은 영웅 찾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에 입각하여 제작된 작품들이 대중성 확보에 실패하자, 절대적 과거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 인민들이 느끼는 애환이나 생활을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설정된 생동하는 인물들(진이, 놈이, 희열 등)은 북한소설에 드러나는 천편일률적인 인물들과 차이점을 지닌다. 홍석중이 그려낸 <황진이>의 세계는 단순히 그들 인민을 대변하는 정적인 세계가 아니라, 삶을 추동하는 정신의 개체성을 인식케 하는 꿈틀거리는 세계이다.<sup>6)</sup>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황진이’와 ‘놈이’의 형상은 견고한 이념이 지배하는 북의 현실에 강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북한문학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으로 인해 <황진이> 연구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보다는, 텍스트를 둘러싼 주변 맥락으로 작품을 재단하는 오류가 그것이다. 이를테면 ‘놈이’의 형상과 관련된 평가가 대표적이다. ‘놈이’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황진이를 넘어서실질적인 주인공으로 격상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놈이’는 황진이의 현실인식을 상층부(양반계층)에서 하층부(민중계층)로 끌어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10-114쪽 참조.

5) 임규찬, 「역사소설의 최근 양상에 관한 한 고찰-‘황진이’의 소설 형상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41권, 국어국문학회, 2005, 58쪽 참조.

6) 이해경, 「이념과 실천의 변주-〈황진이〉의 경우」, 『비평문학』 제2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6, 208쪽 참조.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작품에서는 민중들의 삶의 양상이 꺾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중들의 관점 혹은 계급적 시각보다는, 황진이의 개인적 사랑과 고뇌가 작품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놈이’는 사회의 모순을 제도적으로 개혁하려는 인물이 아니다. ‘놈이’는 혁명가나 의적이기보다는 화적패 두목의 성격이 강하다. 셋째, 황진이에 대한 개인적 사랑이 ‘놈이’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죽음을 불사한 그의 행동 또한 ‘피땀이’를 살리고 ‘황진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선택한 개인적 의리와 사랑의 결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초점이 개인 황진이에 대한 소설화라기보다 그녀가 살았던 조선조 양반 지배 체제 아래에서의 서민적 삶과 그 질곡을 그리는 데 놓여 있다는 식의 평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작품 자체의 분석을 통해 북한문학의 변모 양상을 전망하는 귀납적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물론 홍석중의 <황진이>는 남쪽의 관점에서는 다소 익숙한 소설일 수 있다. 시대적·신분적 제약 속에서, 주체적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문제적 인물의 형상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해 온 북한의 주체문학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매우 낮은 주제라 할 수 있다. 북한문학에서는 개인의 욕망보다 집단의 이익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여 홍석중의 <황진이>는 지금까지 북한문학이 추구해 온 공동체적 관심의 ‘타자’, 즉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황진이의 현실인식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문학의 내적 변화 양상과 남북 문학의 소통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검토

황진이를 대상으로 한 근대 본격 소설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기록과 그 기록들을 배치하는 작가 및 작가가 놓인 시대의 선택과 해석이 타협하고 선택되는 지극히 극적인 장<sup>7)</sup>이 되어 왔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이태준, 최인호, 김탁환, 전경린, 홍석중 등의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sup>8)</sup>

조선조의 남성 권력이 현실적 위협이 되지 않는 황진이의 육체성과 기행을 용인하고 다시 그들의 상상 속에서 황진이를 이상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sup>9)</sup>을 취했다면, 근대계몽기 모성 민족주의는 황진이의 육체성을 철저히 지우는 탈성화를 통해 그녀를 고귀한 예술가적 천품을 지닌 ‘상등여자’로 표상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태준의 <황진이>는 황진이의 욕망을 부정하고 조선적인 것의 표상으로 간주했다거나<sup>10)</sup>, 이태준이 바라본 황진이와 그녀의 시조는 조선과 조선적인 것의 애상을 되비추는 거울로 표상되었다<sup>11)</sup>는 평가는 이를 뒷받침한다.

7) 차혜영, 「사실, 주제, 식슈얼리티-‘황진이’류 소설에 대하여」, 『대중서사연구』 14호, 대중서사학회, 2005, 149쪽 참조.

8) 이들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이태준, <황진이>, 동광당서점, 1938 ; 최인호, <황진이 1, 2>, 1972(동화출판공사, 1986) ; 김탁환, <나, 황진이>, 푸른 역사, 2002 ; 전경린, <황진이 1, 2>, 이룸, 2004 ; 홍석중, <황진이>, 문학예술출판사, 2002(대훈, 2004).

9) 이는 황진이 관련 기록물에 잘 드러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과 허균의 <성웅지소록>에 들어있는 기록에서는 황진이를 “여자로서 뜻이 크고 기개 있는 호걸” 혹은 “남자같이 호걸스럽게 음악 잘하는 여자로서 이인”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덕형의 <송도기이>와 김택영의 <송도인물지>는 황진이의 전통적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면서 그녀의 자유분방함을 애써 경계하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박광용, 「역사가 입장에서 보는 역사소설과 사료 해석-홍석중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0집, 한국현대문학회, 2006, 54-60쪽 참조).

10) 김경연, 「황진이의 재발견, 그 탈마법화의 시도들」,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63-165쪽 참조.

11) 공임순, 「황진이, 거울에 비친 조선 그리고 조선적인 것」, 『식민지의 적자들-조

최인호는 군사독재의 암울한 현실에서, <황진이> 연작을 통해 억눌리고 거세된 욕망을 되살려내고 있으나, 에로스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미학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다<sup>12)</sup>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화담 서경덕이라는 큰 주체의 무능과 모순을 황진이가 떠맡음으로서 교묘하게 화담 서경덕(으로 대변되는 북학파)을 구제할 수 있었다<sup>13)</sup>나, 세상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근원을 추구하며 정진해간 구도자적 존재로 황진이를 그렸다<sup>14)</sup>거나 혹은 이 작품의 진실이란 황진이가 화담서클의 일원이 되는 필연적인 과정, 그리고 권력의 아웃사이드로 끝내 소멸할 수밖에 없었던 화담씨클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이라는<sup>15)</sup>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상에서 김탁환의 <나, 황진이>는 화담 서경덕을 중심으로 황진이 서사를 다시 쓰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경린의 <황진이>는 유교적 윤리와 질서 안에서 여성에게 허용된 삶이 아닌 다른 삶을 꿈꾼 황진이의 자유 영혼, 자유 의지의 측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지에 일상이 제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다.<sup>16)</sup> 또한 시대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를 꿈꾸었지만, 끝내 탈주하지 못하고 탈경계를 꿈꾸는 경계인의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sup>17)</sup>

홍석중의 <황진이>는 황진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물들을 새롭게 창

선적인 것과 한국 근대사의 굴절된 이면들』, 푸른 역사, 2005, 41-47쪽 참조.

12) 황도경,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홍석중과 전경린의 <황진이>』,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34쪽 참조

13) 공임순, 앞의 글, 50-52쪽 참조.

14) 황도경, 앞의 글, 137-138쪽 참조.

15) 김경연, 앞의 글, 167-168쪽 참조

16) 황도경, 앞의 글, 140-145쪽 참조.

17) 우미영, 『복수(復讐)의 상상력과 역사적 여성-최근의 <황진이> 소설을 중심으로』,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92-202쪽 참조.

조합으로써 허구의 용적을 최대한 넓히고 있다는 점, 민중이나 여성과 같은 하위자 집단의 목소리가 뚜렷하다는 점<sup>18)</sup>, 이제까지 황진이에게 덧씌워진 왜곡과 편견의 시선을 문제 삼고 그녀에게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의 에너지를 발견하였다는 점, 장편 역사소설로서 갖추어야 할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이라는 점<sup>19)</sup>, 여러 가지 탈이념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형상은 철저하게 이념적 세계관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점<sup>20)</sup> 등이 주목되었다. 이러한 평가들은 홍석중의 <황진이>가 지닌 문제의식을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보다는, 텍스트를 둘러싼 주변 맥락 즉 이념지향적인 북한 문학의 특성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작품을 재단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편, 자유와 운명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서 ‘황진이’를 분석한 황국명의 논의<sup>21)</sup>와 계급과 신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결코 이를 단순화하거나 물신화하여 인간을 빈약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다는 김재용의 평가<sup>22)</sup>, 그리고 민중적 계급성의 표상인 ‘놈이’와 자유연애주의자의 표상인 황진이의 연애담을 중심으로 북한식 에로티시즘의 현재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오태호의 지적은<sup>23)</sup> 주목을 요한다. 남북의 문학 현실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의 결을 따라 작품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김경연, 앞의 글, 175-179쪽 참조

19) 황도경, 앞의 글, 146-154쪽 참조.

20) 김종희, 「북한 대표 작품의 계급적 관점과 탈계급적 관점-홍석중의 <황진이>가 우리 문학과 같은 점 또는 다른 점」,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민음사, 2007, 52쪽 참조.

21) 황국명, 「남북한 역사소설의 거리-〈황진이〉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9-20쪽 참조

22) 김재용, 「남과 북을 잇는 역사소설 <황진이>」,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23쪽 참조.

23) 오태호, 「홍석중의 <황진이>에 나타난 ‘남만성’ 고찰」,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47쪽 참조.

본고에서는 이상의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황진이’의 현실인식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황진이는 ‘황진사의 고명딸→기생(지배/피지배를 매개하는 중도적 인물)→방외인(자유인)’의 삶의 궤적을 거치는데, 신분적 위치에 따라 현실인식의 양상도 변모하는 생동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주인공의 현실인식 변모 양상을 구체적 삶의 실현과정에서 탐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황진이가 살았던 시대는 물론 오늘의 남·북한 현실까지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II. 본론

### 1. 양반 사대부의 딸로서의 현실인식 : 낭만적 열정과 냉혹한 현실의 길항(拮抗)

양반 사대부의 딸인 황진이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은 1인칭 고백의 형식이 지배하고 있다. 물론 ‘황진이’를 소개하는 도입부나, ‘놈이’, ‘괴똥이’, ‘이금이’, ‘상직할멈’, ‘또복이’ 등 부차적 인물에 얽힌 에피소드는 3인칭 서사를 통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황진이’의 내면을 서술하는 부분에 종속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황진이가 출생의 비밀을 깨닫기 이전의 삶은 다음과 같은 독백이 장악하고 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명료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자연이 어째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만이 아닌 달콤한 아픔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품속에서 눈을 뜬 사랑의 갈망, 행복의 갈망이 심장을 마구 쥐어뜯기 때문이리라. 그래, 그 말이 옳다. 하늘은 오로지 사랑만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것이니까……

(나와 혼약을 맺은 윤승지댁 도련님은 어떤 분일까? 호방하구 활달하구 소탈한 분일까? 아니면 상냥하구 부드럽구 온순한 분일까?)

진이의 녀은 어느새 요요히 하늘 위로 떠올라 아름다운 장밋빛 노을 속을 날고 있었다.

……여보세요,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을 안고 불쑥 소리쳐 찾았으나 당신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얼굴이 붉어져요. 당황해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지곳은 장난군처럼 그냥 웃기만 하시는군요. 다정한 웃음이 저를 더욱 수줍게 만듭니다.

어쩐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 아직은 혼약을 맺었을 뿐 서로 얼굴도 모르는 당신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가급적 있는 사대부집 규정 처자로서 온당치 못한 행실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설사 온당치 못하다고 해도 지금 내 마음을 끄당기는 달뜬 유혹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가슴속에 남몰래 묻어놓은 구구소회를 누구한테든 털어놓지 않고서는 건달 수가 없군요. 바로 그 누구라는 분이야말로 저와 삼색가약을 맺은 당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1권〉, 40-41쪽)

인용문에는 “달콤한 아픔”으로 표상되는 “사랑의 갈망”, 나아가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나 “마음을 끄당기는 달뜬 유혹”으로 변주되는, “혼약”을 앞둔 황진이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내면의 결이 잘 드러나 있다. 작가는 이러한 황진이의 마음을 솔직하고 내밀한 언어를 통해 펼쳐 보이고 있다. 낭만적 사랑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로 제시한 황진이의 독백은, 자신의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충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진솔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황진이는 양반 사대부의 딸이라는 신분적 조건에서 그에 걸 맞는 자유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일탈은 신분적 조건의 범위 내에서 추구하는 일탈이며,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면의 길항으로 표출된다. 이는 양반 사대부의 딸로서의 내면이 지극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황진이는 민중적 혹은 계급적 관점으로 재단되지 않는 생동한 성격을 지

니고 있다.

황진이는 스스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진이는 스스로 자신의 결함을 잘 알고 있었다. 불임성이 없고 늘 욕구불만에 모대기는 계집애, 자기가 처한 환경에 만족할 수가 없어 늘 ‘무엇’을 바라고 있으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며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욕구불만에 몸부림치는 계집애, 안존하지 못하고 늘 방황하는 꿈속에서 살며 일단 그 꿈에 대한 지향이 무서운 불길로 타오를 때는 무모할 정도로, 그야말로 무모하달 만큼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 불길에 온몸을 맡겨버리는 위험한 열정을 지닌 계집애.

그러나 진이는 그 무모한 열정의 순간에조차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곧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를테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맑게 비쳐지는 어루쇠와 같다고 할가. 마치 어루쇠에 얼굴을 비추어보고 얼른 흠어진 머리와 매무시를 바로잡듯이.(〈1권〉, 47쪽)

스스로의 내면에 불타오르는 “욕구불만”을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유교적 가치규범이 규정한 성현의 이미지)을 통해 억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열정과 부분별한 대담성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하는 “호기심”의 이름으로 표출된다. 그는 규중처자의 정도를 넘어 글과 음악에 열중하고 있으며, 그런 호기심으로 “사랑채 서재에서 주역을 흠쳐다 놓고 밤새 초불 밑에서 눈씨름”을 한다. 즉, 규중처자로서의 황진이의 내밀한 일탈의 공간은 그녀의 방 혹은 “집 후원의 청신한 숲속”인 셈이다. 낭만적 자유 혹은 사랑의 열정을 앞세워 이 공간을 넘어서고자 할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혹한 현실원칙이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얼마나 좋은가. 아름다운 풍치나 맑은 공기로 말하면 집 후원의 청신한 숲속과 이 번잡한 먼지투성이의 거리바닥을 비길가마는 여기에는 자유가 있었다. 오, 자유여! 자유로운 귀신이 묶이운 신선보다 낮고 여원 자유가 종살이보다 낫다는 말을 누구나 쉽게 입으로 외우지만 자

신이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의 깊은 뜻을 절감할 수가 없다. 진이는 자유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생그레 웃고 말았다.(〈1권〉, 97-98쪽)

② “흥, 명주바지에 똥싸개야. 얼굴 고운 년의 뭐가 털뿐이라구 얼굴 잘난 사내치구 연장 잘난 것 아직 못봤다. 원, 벗겨보문 방울×이 달랑할 걸.” (...중략...)

“얼굴이 해반주그레한 게 용심이 나는 걸. 이에, 내 후정따기루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랴?”(〈1권〉, 99-100쪽)

①은 자신만의 공간을 벗어난 자유에 도취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지만 남장을 하고 “변잡한 먼지투성이의 거리바닥”에 나서자마자 진이는 자신의 무모한 호기심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양반집 규수로서의 황진이가 생각하는 낭만적 자유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치자 여지없이 무너진다. ②는 남장한 황진이를 보고 색주가의 민초들이 던지는 욕설이다. ①과 ②는 어투, 문체, 비유 등에서 너무나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이야말로 사대부가의 딸 황진이와 민중들의 삶 사이의 거리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사대부 규수로서 황진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후원 숲속”을 산책하면서 꿈꾸는 독백과 환상의 세계인 것이다.<sup>24)</sup>

이렇듯, 그녀에게 민중적 삶은 구체적 현실로 다가오기보다는 추상적·관념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놈이’, ‘이금이’ ‘상직함뎌’ ‘또복이’ 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양반으로서의 위치에서 베푸는 “런민에 가까운 동

24) 이러한 대비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품은 사랑과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랑 행위 사이의 간격으로도 표출된다. 그에게 사랑은 “첫봄에 망울을 터친 진달래의 깨끗한 연분홍빛이었고 달밤 거문고 줄에서 자아오르는 <풍입송>의 선율처럼 은근하고 우아한 것”이다. 그녀는 우연히 하인과 계집종의 사랑 행위를 목격한다. 그 “해괴한 광경”은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고 가슴은 활랑거리게 만들고 입안에 침을 마르게 만들면서도 어느 잡초의 이름 모를 꽃에서 풍기는 독한 향기처럼 머리가 아픈 것이었고 굶판의 령신 들린 무당춤처럼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것이었다.” 추잡하지만, “스스로 좋아서 서로 즐기는 일”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고 마음을 다잡을 따름이다.

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황진이의 현실인식은 출생의 비밀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변화하기 시작한다. 양반인 아버지와 계집종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출생을 깨닫고 황진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여기에서 위인이 나 성현으로 떠받들며 존경했던 아버지의 위선을 깨닫는 과정과 하층민의 삶으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어머니의 “비천한 피”를 용납하는 과정이 겹쳐진다. 아버지의 족자를 태우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고 난 후 진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새롭게 태어난다. “량반댁 고명딸”의 허물을 벗고 ‘기생’으로 거듭난 것이다. 자신을 연모하며 상사병을 앓던 ‘또복이’이의 장례날, 그의 혼백과 저승의 사랑을 약속하며, “이승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전혀 있을 수 없는 목석과 같은 녀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일념이 스며있다. 낭만적 사랑의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녀는 환골탈태의 마지막 순서로 ‘놈이’를 찾는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나아가 “옛 진이”를 죽이는 장면에서도 작가는 진이의 욕망을 오롯이 새기고 있다.

놈이의 숨결이 가빠졌다. 후들후들 떨리는 그의 손이 진이의 몸을 더듬었다. 진이는 깜짝 놀라며 그의 손을 뿌리쳐버리려고 했으나 이미 그럴 힘이 없었다……

진이는 달빛 속에 누워 있었다. 굳은살이 박힌 놈이의 거친 손이 그의 부드러운 살결을 쓰다듬으며 점점 아래로 내려왔다. 진이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입에서 신음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다. 문득 가슴이 무거워졌다. 무섭게 흡뜯 놈이의 두 눈이 이글거리는 숯불덩이가 되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진이는 아, 하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버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봉은사의 종소리는 옛 진이의 죽은 넋을 바래우는 애절한 초혼의 메아리마냥 구슬프게 울리고 있었다.<1권>, 201쪽)

인용문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진이가 객주가에 몸담기를 결심하고, 늬이에게 순결을 던지는 대목이다. 자신을 지켜줄 기동서방으로 늬이를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늬이에 대한 사랑이 매개되어 있지 않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거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작가는 진이의 몸의 욕망을 섬세하게 음각해 놓았다.<sup>25)</sup> “굳은살이 박힌 늬이의 거친 손”이 진이의 “부드러운 살결”을 쓰다듬자, 진이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온다. 진이는 이러한 몸의 욕망을 “눈물”로 외면하고 있을 따름이다. 순간적인 관능과 흥분의 밀물이 물러간 이후, 환멸과 혐오의 쓰디쓴 썰물이 들어오는 심정을 잘 포착한 장면이다.

이상에서 황진사의 고명딸로 설정된 황진이의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현실인식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점은 작가가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철저히 배제하고 양반 사대부가의 딸로서의 황진이를 객관적으로 그렸다는 점이다. 황진이의 낭만적 자의식을 현실인식의 한계로 간주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녀가 처한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면밀하게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면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내면과 일상을 의도적으로 거세해온 기존의 북한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생한 인물을 창조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황진이의 내면적 욕망을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작가의 시선은 남과 북의 이념적 차이를 무화시킬 정도로 빼어난 문학적 성취를 일구어내고 있다.

## 2. 기생으로서의 현실인식 : 풍자의 시선과 내면 응시의 공명(共鳴)

주지하듯, 기생이란 제도적으로는 백정과 함께 취급되는 최하층의 신

25) 남한 문학을 이해하는 관점으로는 남성 작가의 여성의 성에 대한 편견이 개입된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념에 종속된 개인의 욕망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기존 북한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장면은 분명 개인과 욕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분이면서, 그들이 활동하는 ‘장’ 자체가 상류계급인지라, 상류계급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그것이 억압하고 있는 욕망을 발산하는 특수한 변경지대에 생존하는 이들이다.<sup>26)</sup> 황진이의 위치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기생이라는 신분적 조건에서의 내면적 갈등은 분열적 자의식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녀가 파혼자에게 읊조리는 독백의 목소리가 여전히 지속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왜냐하면 황진이가 속한 기생이라는 신분은 양반들의 세계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황진이는 민중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따라서 그녀의 현실인식은 양반들의 허위와 위선을 풍자·희화화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생이 되기 이전 양반 사대부가의 딸로서 품었던, 달콤한 사랑에의 환상은 여전히 그의 내면에 잠복되어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진이는 ‘이금이와 괴똥이’의 사랑으로 완성시키고자 한다.

기생으로서의 황진이를 기술하는 작가의 시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양반 사대부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 풍자의 시선이 하나이고, 황진이의 분열된 내면을 응시하는 주관적 시선이 다른 하나이다. 이들의 시선은 서로 길항하며 황진이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먼저 양반 사대부들의 삶을 비판·풍자하고 있는 시선을 살펴보자. 황진사의 가식적이고 허위적인 삶이 자신의 뿌리라는 점에서 황진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분노는 양반 계층의 허위의식 전체로 확산된다. 이러한 비판·풍자의 시선이 사회 구조적 모순의 극복 의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앞서 살펴본 양반 사대부의 딸로서의 자의식과 마찬가지로 기생이라는 신분적 조건 속에서 겪는 내면적 갈등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진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선 그의 둘도 없는 벗이 되어야

26) 차혜영, 앞의 글, 148쪽 참조.

한다. 진이의 벗이 될 수 있는 리상의 사내는 술에 취해 물속에 비낀 달을 건지려다가 목숨을 버린 리백이나 일생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다가 세상을 버린 매월당이 될지언정 장팔사모를 휘두르는 호용한 장비나 맨손으로 범을 때려잡은 무송이 아니었다.…… 결국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놈이는 진이의 곁을 영영 떠나가버렸던 것이었다.(〈2권〉, 21쪽)

인용문은 기생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자각한 고백이다. 기생에게 사랑의 대상은 “벗”이어야하고, 그 벗은 ‘장비’나 ‘무송’ 혹은 ‘놈이’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 ‘리백’이나 ‘매월당’ 같이 목숨 혹은 세상을 버린 자여야 한다. 이렇듯 양반 계층의 허위와 위선을 비판·조롱하는 황진이의 현실 인식은 민중의 시각이 아니라 기생의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비판·풍자의 시선은 자신의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는 인물을 탐색하는 과정과 맞물린다. 양반 계층의 허위적 욕망을 폭로하는 행위 이면에는 진정한 벗(군자)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내밀한 욕망이 함축되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벗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① 충남은 금시 창황한 기색을 털어버리고 도학군자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 점잖은 팔자걸음으로 안마당에 들어섰다. 명치끝이 간질간질하고 요글요글한 것이 마치나 반찬판에 몰래 기여들어가서 쫄깃쫄깃한 고기 덩어리를 훔쳐먹고 무사히 빠져나온 고양이의 쾌락한 기분이었다.

(아하, 알고보니 중이 몰래 개고기를 사먹는 맛이 고기 맛이 아니라 도적 맛이로구나.)(〈1권〉, 252쪽)

② 한쪽에서는 얼굴이 딸고기 자반처럼 시뻘개진 생원님, 진사님들 서넛이 기생들과 한데 어울려서 술기운과 한껏 부풀어오른 정욕을 음탕한 외설로 달래고 있었다.

“그래 계집의 입이 두 개라면 웃입, 아래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이를 먹었느냐?”

“그야 물론 웃입이지요.”

“그건 왜?”

“웃입엔 이발이 났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옳다.”  
 “아니예요, 아래입이 더 나이를 먹었어요.”  
 “그건 또 왜?”  
 “아래입엔 수염이 나지 않았나요.”  
 폭소가 터지고 허리들을 분질렀다.  
 “옳거니, 짜장 네 말이 맞았다.”  
 “아니, 아니예요. 아래입이 더 어려워요.”  
 “어째서?”  
 “늘 젖을 빨구 싶어하니까요.”(<2권>, 99쪽)

양반 사대부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작가의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인용문 ①은 겉으로는 성인군자인 체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벽계수’의 행동을 풍자하고 있는 대목이다. 생생한 입말과 해학적인 속담을 섞어 인물의 위선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②는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통해 인간의 품격이 눈곱만치도 없는 천박한 무리들의 “정그러운 정염”을 풍자하고 있다. 이 장면에 뒤이어 ‘이금이와 괴똥이’의 진솔한 사랑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질박한 속담과 노골적인 음담패설은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동시에 건강한 민중들의 욕망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중들의 욕망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황진이가 자신의 좌절된 욕망을 ‘이금이’와 ‘괴똥이’의 사랑을 통해 대리충족하고자 하는 예에서 드러나듯, 간접적·매개적으로 표출될 따름이다.

다음으로 기생으로서의 분열된 내면을 표출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이 분열된 자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파혼자를 불러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설정은 작품의 계급적 한계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황진이의 분열된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저는 사내를 무아의 황홀경으로 이끌어갑니다. 문득 정점에서 멈춰섭니다. 다시 더 높은 벼랑 끝으로 끌어올립니다. 아득한 하늘의 구름 위에서 저는 드디어 고삐를 놓아줍니다. 순간 사내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울부짖음은 악귀한테 넋을 빼앗기는 달콤한 고통의 통곡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위선의 허울은 벗겨지고 넋을 빼앗긴 그림자가 이 방에서 나갑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애원을 하고 비두발팔을 해도 또다시 이 방 문턱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단 넋을 빼앗긴 그림자는 악귀한테 소용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시는군요. 모질고 살찬 저의 말에 놀라셨는가 보죠. 모를 일이군요. 당신들 사내들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날마다 녀인들의 넋을 희롱하면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담대한 분들이 아닌가요.

……사랑이라구요? 원, 웃기지 마세요. 사랑이란 두억시니와 같은 것이예요.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또 당신의 말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들의 그 뻔뻔스러운 계집질과 다른 것이 뭔가요? 당신들이 그것을 무슨 이름으로 부르던 간에 자식을 점지하는 삼신할미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한갓 아이를 만들기 위한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예요. 보세요, 바로 그런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량반의 피줄과 종의 피줄이 한데 뒤섞인 진이가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았나요.(〈1권〉, 276-277쪽)

인용문에는 양반 사대부들의 허위의식을 조롱하는 심정이 스며들어 있는데, 파혼당하기 이전의 고백과 분명한 차이점을 지닌다. 고백을 들려주는 상대 또한 비판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여전히 1인칭 고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 낀 기생으로서의 분열된 내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대부들의 뒤돌린 욕망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이를 사대부에게 고백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황진이와 내면은 사내들에게 노래와 춤과 웃음을 파는 한갓 기예가 뛰어난 기생으로서의 명월(대청마루)과 손님을 맞아 위선의 허울을 쓴 사내들의 불쌍한 넋을 희롱하는 지옥의 악귀로서의 명월(건너방),

그리고 무시무시한 심연처럼 까마득한 절망의 나락에서 눈물을 삼키며 소리 없이 우는 진이(옷방)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분열된 자의식이 거기에 걸 맞는 표현을 불러온다. 야사, 시가, 속담, 비속어, 욕설 등 다양한 서술방식과 표현방식이 어우러진 <황진이>의 이야기 잔치는 이러한 의도에 맞게 치밀하게 조율되는 셈이다.

황진이의 분열된 자의식은 ‘놈이’와의 사랑을 통해 가까스로 통합하는데, 기생으로서의 신분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황진이는 ‘놈이’와의 사랑을 확인하기 전, 송도유수 김희열과 화담 서경덕과의 교류를 통해 기생으로서의 자의식을 은근하게 드러낸다. 먼저 김희열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자. 황진이는 김희열의 풍모에 은근히 끌린다. 양반 사대부들의 허위와 가식을 조롱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희열 또한 권력층의 가면을 쓴 인물이다. 다만, 음험하게 자신의 욕망을 걸고로 드러내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작가는 김희열의 성격을 매우 공들여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는 걸고로 드러나는 가식과 허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음흉한 욕망까지 사실적으로 포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진이와 ‘놈이’의 사랑이 김희열의 위선으로 좌절되는 모습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호방한 풍류객인 양 자처하던 김희열 또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이와의 우정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한편, 서경덕은 진이에게 존경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몸의 욕망을 절제 혹은 초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화담은 몸의 욕망을 긍정하는, 즉 기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진이의 연인이 될 수 없다. 이는 황진이가 화담을 유혹하는 대목에 잘 드러나 있다. 작가는 이 부분에도 몸의 욕망을 음각하여 놓았다. 자신의 몸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화담에게 다가가 그의 물건을 더듬은 황진이는 화들짝 놀란다. “그것은 단연 뛰어나게 잘나기도 했거니와 솟구치는 근력의 장엄함으로 말하면 색계상의 백전노장인 진이조차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뛰어나게

훌륭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화담은 몸의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몸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이성과 정신의 영역을 비집고 분출되는 이러한 몸의 언어야말로 <황진이>의 진정한 주제의식의 하나라 할 만하다.

기생으로서의 황진이가 서경덕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놈이’와의 비극적 사랑이 펼쳐진다.

만약 사랑하는 벗을 고르라면 술에 취해 물속에서 달을 건지려다가 수중고혼이 된 리백을 택할지언정 무작정 장팔사모를 휘두르는 호용한 장비를 고르지는 않겠노라고. 그런데 세상에는 떡으로 종이 우에다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자취로 인생길 우에다가 시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진이는 5년간에 달라진 놈이의 모습에서 바로 그런 특이한 ‘시인’의 격렬한 고민과 세찬 걱정을 보았으며 자신의 새삼스러운 발견을 환희라고나 이름할 수 있는 들뜬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었다.(〈2권〉, 218쪽)

‘놈이’와의 사랑은 기생으로서의 신분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각성이라 할 만하다. “떡으로 종이 우에다가 시를 쓰는 것”이 양반과 매개된 기생의 자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 “자신의 발자취로 인생길 우에다가 시를 남기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는 기생의 신분적 조건을 넘어서는 문턱에서 펼쳐진다. 황진이는 ‘놈이’의 세계에 몸을 맡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황진이를 감응시키는 ‘놈이’의 풍모가 지극히 개인적 욕망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놈이’는 황진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지닌 영웅적 인물이다. 하지만, 이 사랑 때문에 고뇌하고 번민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황진이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대목은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고뇌하는 ‘놈이’의 진솔한 내면을 표출하는 한 예이다. ‘놈이’는 그 어떤 대의나 민중들의 절박한 요구 때문에 행동하는 인물이 아니다. 비극적 결말 또한 ‘괴똥이’에 대한 의리와 황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개인적 의리와 사랑이

비장한 결말을 유도하는 요인인 셈이다. 황진이와 ‘놈이’의 사랑 또한 지난 시절의 순정한 추억을 매개로 확인된다. 여기에는 민중적 혹은 동지적 결합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다. 제도와 신분의 차이로 인해 좌절되는 개인적 사랑 이야기가 이 작품의 중심축인 것이다.

이렇듯, 기생으로서 황진이의 현실인식은 기생이라는 신분적 조건이 그러하듯 다분히 분열적인데, 양반 사대부들의 허위적 욕망에 대한 풍자와 기생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는 분열된 내면의 길항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균열은 ‘놈이’와의 사랑을 통해 봉합되는데,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제시된다. 겉으로는 민중들의 삶의 양식이 적극적으로 투영되어 이념적 지향을 띠고 있는 듯이 보이나, 실상을 그렇지 않다. ‘괴똥이’와 ‘이금이’의 행복한 사랑은 황진이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투영한 것에 다름 아니며, ‘놈이’와 진이의 비극적 사랑 또한 양반 사대부들의 허위적 사랑과 대비되는 순정한 개인들의 사랑이지 결코 이념적 결합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존재와 세계의 팽팽한 긴장을 전제로 한 이러한 개인적 사랑과 욕망은, 지금까지의 북한소설에서 쉽게 맞볼 수 없는 색다른 감응을 전해준다.

### 3. 방외인으로서의 현실인식 : 현실과 현실 너머의 긴장

황진이와 ‘놈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을 추구했다. 이로 인한 절망을 온몸으로 감당한 이후 방랑/유랑의 길(자유인의 삶)을 떠났다는 점에서 황진이는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진 후, 자신으로서는 더는 어찌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뉘는 현실 초극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다시 기생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현실 도피에 가까워 보인다. 양반 사대부들의 위선과 허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기생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다. 김희열의 예에서 드러나듯, 그들은 황진이의 야유와 풍자를 제도의 영역으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황진이에게

남아 있는 선택은 ‘기생’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던지는 일이다. 더 이상 사대부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sup>27)</sup> 이에 황진이는 이분법에 갇힌 체제의 바깥을 선택한다. 이때 비로소 이백이나 매월당, 그리고 서화담과 벗이 될 수 있다. 하여, 황진이의 유랑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와 체제에 대한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저항(조롱, 풍자)의 방식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선/악, 진실/위선, 지배/피지배 등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있다.<sup>28)</sup> 현실 속에서 현실 너머를 꿈꾸는 방외인의 삶<sup>29)</sup>이 음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작가의 관심이 개인적 사랑·행복의 추구에 있지 않고, 사회 구조적

27) 기생이라는 신분은 황진이에게 다양한 일탈을 가능하게 한 계기이자 남성 권력이 황진이의 일탈을 용인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조선조의 남성권력은 황진이의 낮설음을 용인하고 즐길 수 있었으며, 분출하는 그녀의 성적 욕망은 파괴력이 제거되어 있으므로 전혀 음란하지 않았다(김경연, 앞의 글, 162쪽 참조). 황진이는 이를 깨닫고 기생의 신분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늬이와의 사랑을 통해 황진이가 이를 깨닫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민중의 삶을 매개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에 걸쳐있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28) 최원식은 황진이의 이러한 모습을 서화담마저 부정하는 절대자유의 경지로 이해하는데, 이는 독자들을 신분사회 또는 계급사회의 질곡에 대한 침통한 숙고로 안내하며, 자본주의는 물론 현존 사회주의 너머로 사유를 확장시키고 있다고 본다(최원식, 앞의 글, 129쪽 참조).

29) 방외인은 이인(異人)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인(異人)’이란 칭호는 유교가 받아들여진 이후의 전통사회에서, 유교의 이상적 인간형인 성인과 군자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유교적이 아니면서도(대체로 유교적 인간형과는 대척 지점에서 있으면서도) 한 시대를 넘어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인물, 곧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서 전통사회가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기억해 오고 있는 특출한 인간형들에게 붙여지고 있다. 황진이를 이인의 전형으로 보는 평가는 유몽인의 <어우야담>과 허균이 남긴 <성웅지소록>에 드러난다. 성리학적인 성인-군자와는 대척 지점에 있는 또 하나의 인간형으로서, 황진이 경우는 마치 전설과도 같이 보존되어 왔다. 곧 황진이는 성리학이 조선사회에 토착되어 가면서 조선 성리학파가 형성되어 가던 시기에 나타난 이인, 곧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듣고 옳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실사구시 정신을 실천하였으므로, 대학자 서경덕도 인정한 여자 호걸이었다는 것이다(박광용, 앞의 글, 69-70쪽 참조).

모순을 극복하려는 계급적 시각에 집중되었다면 이러한 체제의 밖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방외인(方外人)은 어떤 문화의 중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방외(方外)’에서 삶을 꾸려간 인물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방(方)’은 유·무형의 테두리 또는 규격이고 ‘방외(方外)’는 그것의 언저리 내지 밖을 의미한다. 방외인 문학은 방외인이 주체가 되어 이룩한 문학 활동 내지 문학 작품의 총칭이다. 윤주필은 한국의 방외인 문학은 중세를 주도했던 지식인의 한 문학유파로 취급해야 한다고 할 때 조선전기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여기서 진일보하여 지식인들이 시대의 고난과 사상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고자 할 때 방외의 정신이 광채를 발했던 자취를 한국지성사에서 통시적으로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의 근대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식민지 사관, 개발 독재, 좌우이념 갈등, 물신주의 등을 거부하고 명분과 기능성에 매몰되기 일췌인 지식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천적이고 주체적인 근대인의 길을 마련하는 데 방외정신은 소중한 우리 지성사의 전통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방외인은 진실이 증발한 시대를 아파하며 아직은 오지 않은 시대의 가치를 소망하지만 그 무엇도 미리 전제하기를 거부하는 존재들이다.<sup>30)</sup>

다음은 황진이가 속세를 떠나는 장면인데, 방외인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할멈이 년세가 있는 분이니 각별하게 잘 보살펴드리구. 혹시 내가 없는 사이 일이 생기문 너희 부부가 자식이 되어 마지막 길을 잘 배려 드려라. 난 기약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니 날을 정하구 기다리지는 말아라. 죽지 않구 살아 있으문 또다시 집에 돌아올 때가 있겠지. 그래두 사람의 명이란 알 수 있니? 혹시 내가 객사했다는 소식이 들리거들랑 너희 내외가 내 시신을 수습해다구. 따루 봉분을 만들지 말구 길가에 아무

30)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 문학』, 집문당, 1999, 5-11쪽 참조.

떻게나 물어라. 나한테 뉘를 빼앗겼던 사람들이 마음껏 설치를 할 수 있게 말이다.”(<2권>, 299-300쪽)

인용문에는 ‘방(方)’과 ‘방외(方外)’에 걸쳐 있는 황진이의 내면이 잘 드러나 있다. “기약 없는 길”을 떠나지만, “또다시 집에 돌아올 때”를 염두에 둔다. 그녀는 ‘상직할멈’의 안위와 자신의 후일을 ‘괴똥이/이금이’ 부부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특히 자신이 죽으면 “봉분을 만들지 말구 길가에 아무렇게나 물어라”고 당부하는 대목은 자신한테 “뉘를 빼앗겼던 사람들”의 한(恨)을 풀어주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현실과 현실이며,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방외정신’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황진이의 방외인으로서의 모습은 “속된 선비”의 영역을 넘어 “뉘이나 혼”을 거느리고 “비구름을 발 아래 내려다보면서 큰소리로 산수가를 한 마당 불러보는 가객의 흥취와 락”으로 변주되기도 한다.

“흥, 빈 자루를 세울 수 없단 말이 과연 옳군. 제비나 참새가 어찌 백로의 뜻을 알겠는가? 이 사람아, 산수유람이란 뉘이나 혼을 가지고 하는겐데 차림은 무슨 상관이요 식후경은 또 뭐고?…… 자네 같은 속된 선비가 그래 가는비 내리는 말 비로봉에 올라 비구름을 발 아래 내려다보면서 큰소리로 산수가를 한 마당 불러보는 가객의 흥취와 락을 알겠나? 진이와 함께 나는……가만 있자, 진이는 어디루 갔어?”(<2권>, 315쪽)

이렇듯, ‘리사중’과 산수를 떠도는 황진이의 삶은 분명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시대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극점으로부터 확장시키는 행위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맹아이자 암시적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존재와 세계의 긴장을 포착하는 문학의 존재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삶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홍석중의 <황진이>는 황진이가 살았던 시대의 지배적 가치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는

황진이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인 전망이 그 시대 안에서는 확보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작가는 양반 사대부들의 주류적인 가치를 욕망의 언어를 통해 상대 화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는다. 작가의 관심 또한 황진이의 생애 복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황진이를 통해 오늘의 현실을 성찰 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 Ⅲ. 결론

북한문학은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는데, 이는 북한문학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북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제와 문학을 동시에 고려하는 유연한 사고가 요구된다.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고려와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균형감각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인정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이해나 혹은 상대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객관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연구 현장에서는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다. 특히, 북측의 문예정책에 기초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혹은 북한문학의 미학적 가능성을 애써 차단하려는 태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제 남북의 문학이 대등한 지평에서 서로 접촉하는, 그야말로 열린 문학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의 문학 연구자들은 공히 감정적 구호의 차원을 넘어,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심정으로 어떻게 서로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다.<sup>31)</sup> 이에 총론과 각론이, 통시적 흐름과 공시적 현상이 융합되는 지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현실인식 변모 양

31) 김중희 외, 『작품으로 읽는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역락, 2007, 머리말 참조.

상을 중심으로 홍석중의 <황진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에서 황진이는 자의식을 지닌 생동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녀는 '황진사의 고명딸→기생(지배/피지배를 매개하는 중도적 인물)→방외인(자유인)'의 삶의 궤적을 거치는데, 신분적 위치에 따라 현실 인식의 양상도 변모한다.

황진사의 고명딸로 설정된 황진이는 낭만적 열정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길항하는 내면의식을 표출한다. 이러한 황진이의 내면적 욕망을 섬세하게 포착해내는 작가의 시선은 개인의 내면과 일상을 의도적으로 거세해온 기존의 북한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생생한 인물을 창조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기생으로서 황진이의 현실인식은 기생이라는 신분적 조건이 그러하듯 다분히 분열적인데, 양반 사대부들의 허위적 욕망에 대한 풍자와 기생으로 전략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는 목소리 사이의 길항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균열은 '놈이'와의 사랑을 통해 봉합된다. 하지만 '놈이'와 '진이'의 비극적 사랑은 양반 사대부들의 허위적 사랑과 대비되는 순정한 개인들의 사랑이지 결코 이념적 결합(혁명적 사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개인적 사랑과 욕망은 존재의 내면과 욕망이 의식적으로 거세된 지금까지의 북한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상인데, 남 북 문학과 소통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세속을 떠난 방외인으로서의 모습은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진 후, 더는 어찌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뉘는 현실 초극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생의 신분으로 양반 사대부들의 위선과 허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악, 진실/위선,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을 넘어선 지점에서 감행된 탈주라 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기획에 기초한 역사의식으로 무장된 민중의 이미지를 넘어 방외인으로 거듭 난 황진이

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홍석중의 『황진이』는 시대의 지배적 가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고자 했던 문제적 개인 황진이의 삶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강조해온 북한문학에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황진이, 현실인식, 역사소설, 북한문학, 사대부, 기생, 욕망, 방외인, 개인

## 참고문헌

- 공임순, 「황진이, 거울에 비친 조선 그리고 조선적인 것」, 『식민지의 적자들-조선적인 것과 한국 근대사의 굴절된 이면들』, 푸른 역사, 2005, 41-52쪽.
- 김경연, 「황진이의 재발견, 그 탈마법화의 시도들」,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62-179쪽.
- 김재용, 「남과 북을 잇는 역사소설 <황진이>」,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23쪽.
- 김중희, 「북한 대표 작품의 계급적 관점과 탈계급적 관점-홍석중의 <황진이>가 우리 문학과 같은 점 또는 다른 점」,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민음사, 2007, 52쪽.
- 김중희 외, 『작품으로 읽는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역락, 2007.
- 박광용, 「역사가 입장에서 보는 역사소설과 사료 해석-홍석중의 <황진이>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0집, 한국현대문학회, 2006, 54-70쪽.
- 오태호, 「홍석중의 <황진이>에 나타난 ‘낭만성’ 고찰」,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47쪽.
- 우미영, 「복수(複數)의 상상력과 역사적 여성-최근의 <황진이> 소설을 중심으로」, 「황진이의 재발견, 그 탈마법화의 시도들」,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92-202쪽.
- 윤주필, 『한국의 방외인 문학』, 집문당, 1999, 5-11쪽.
- 이상숙, 「역사소설 작가로서의 홍석중」,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92쪽.
- 이혜경, 「이념과 실천의 변주-〈황진이〉의 경우」, 『비평문학』 제22호, 한국비평문학회, 2006, 208쪽.
- 임규찬, 「역사소설의 최근 양상에 관한 한 고찰-‘황진이’의 소설 형상화

- 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41권, 국어국문학회, 2005, 58쪽.
- 정호웅, 『한국의 역사소설』, 역락, 2006, 12쪽.
- 차혜영, 「사실, 주제, 섹슈얼리티-‘황진이’류 소설에 대하여」, 『대중서사 연구』 14호, 대중서사학회, 2005, 148-149쪽.
- 최원식,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감각들-김영하의 <검은 꽃>과 홍석중의 <황진이>」,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10-129쪽.
- 황국명, 「남북한 역사소설의 거리-<황진이>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9-20쪽.
- 황도경,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홍석중과 전경린의 <황진이>」, 『살아 있는 신화, 황진이』, 대훈, 2006, 134-154쪽.

<Abstract>

A Study on <Hwang Jin-Yi> by Hong  
Seok-Jung

- Focus on the change of reality recognition of main  
character

Ko, In-Hwan

<Hwang Jin-Yi> by Hong Seok-Jung contains important meaning on inner change of North Korea's literature and literary exchange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novel has the strong power to attract the readers of South Korea though it is reflected the idea of North Korea appropriately. The main driving forces of this novel are individual love in question and to pursuit happiness although it has strong voice of criticism of irrational social reality. It is a meaningful change which compares with the existing North Korea's novels are captured with the logic of socialism. However, it's clearly exposed the critical points of various researches because of the prejudice of North Korea's novel. The mistakes which evaluate the novels with the circumference context rather than concrete text analysis. But, now the inductive method is required for see the change aspect of North Korea's literature with analysis of the work itself. In this paper, therefore, focuses on the change of reality recognition of 'Hwang Jin-Yi(heroin in the novel)' and analyze the concrete meaning of this novel. <Hwang Jin-Yi> searches for the change procedures of reality recognition of main character in actual life realized, with these steps,

writer reflects the era of 'Hwang Jin-Yi' lived and our reality.

In this novel, 'Hwang Jin-Yi' is a vivid woman who has self-consciousness. She goes through many social positions - 'the only daughter among many sons in noble Hwang's family → Gi-Saeng(singing and dancing girl who is cultured in ancient Korea / it's neutral position between ruling class and lower class) → freeman' - and her reality recognition had changed according to her social positions.

'Hwang Jin-Yi' who is the only daughter among many sons in noble Hwang's family has romantic and abstract reality recognition. Especially, the eyes of writer who catches delicately the internal desire of 'Hwang Jin-Yi' has universality which union the difference ideal gap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reality recognition of 'Hwang Jin-Yi' as Gi-Saeng is expressed as division; she satirizes the noble's hypocritical desire and despairs herself with social position as Gi-Saeng. Such crack are sutured as love with 'Nomi(hero in this novel)'. The tragic and pure love between 'Nomi' and 'Hwang Jin-Yi' is compared with the hypocritical love and doesn't have the meaning of revolutionary love as ideal concept. Like this, individual love and desire are rarely reveal in North Korea's novels which forbid the inside and desire of existence, so this novel is very meaningful to look for communication South and North literature.

'Hwang Jin-Yi' as a freeman who lefts the human society doesn't mean of escape from reality but rises above the world after doing her duties in her life. It's impossible to overcome the hypocrisy and falsity of noble class as Gi-Saeng. It's a transcendence beyond the

dichotomy like as 'good vs evil', 'truth vs false' and 'ruling class vs lower class'.

'Hwang Jin-Yi' doesn't overcome the contradiction of her era. But it doesn't matter. It can become a signal of new era because 'Hwang Jin-Yi' considers her problem as periodic meaning in her era. Probably, the significance of literature which captures the state of tension between existence and real world is to reflect the real life's meaning. Such a point, <Hwang Jin-Yi> by Hong Seok-Jung asks us who lives in real world which the capital logic governs what is the meaning of life, with heroin 'Hwang Jin-Yi' who tries to overcome the periodic dominant concepts though she couldn't escape the false era.

Key Words : Hwang Jin-Yi, reality recognition, historical novel, North Korea's literature, the noble, Gi-Saeng, desire, freeman, individual